

총회 노동주일 예배문

※ 노동주일(4월 24일)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당하는 실직자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및 일용 노동자의 삶과 신앙의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아래의 예배문을 참고하시어 교회의 신앙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주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부름

인도자

온 세상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한 노동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각자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를 먹고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총회 노동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가 서로의 탄식에 공감하는 상생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입례송

----- 피난처 있으니(70장) -----

다함께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 시편72편(교독문 18번) -----

인도자

인도자 :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회중 :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인도자 :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회중 :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인도자 :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회중 :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인도자 :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회중 :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 :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찬송

----- 예수님은 누구신가(96장) -----

다함께

- 1.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 2.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 3.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 4.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경봉독

말은이

*설교본문은 노동주일에 맞게 다른 본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참고: 신 24:14-15, 마 25:31-46, 눅 4:16-19, 요5:1-17 등)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 공동기도 대신 각 기도제목에 따른 대표자를 세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 예) 1. 실직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 ○○○장로
 2. 비정규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 - ○○○권사
 3.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기도 - ○○○집사
 4.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기도 - ○○○청년 등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단순히 돈과 물질을 위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명으로 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마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시고, 비정규직과 기간제로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을 살피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 그마저도 어려운 장애인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 한숨짓는 젊은이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일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노동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노동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차별과 불평등, 고통
과 고난이 만연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
은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대하게 전하며 자신
의 몸을 드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
하게 행동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세상을 새롭게 변
화시키십시오.

참고자료 1. 노동주일 설교문

*이 설교문은 2021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총회노동주일 설교공모전에서 채택된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작성자 : 제주노회 전도목사,
NC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연구원 김신약 목사)

“예수, 노동, 공동체”

(요한복음 21장 1-14절)

1

‘인생은 전쟁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삶 전체를 전쟁 같다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살다보면 전쟁과 같은 특정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비유 할 만큼 극렬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그것은 과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의견 충돌, 갈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죠. 대상이나 장소, 이유는 다양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과 같이 치열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도 여러 차례 전쟁과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갖은 오해와 차별, 질병 등과 맞서야 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종교정책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같이 비유가 아닌 실제 전쟁을 겪기도 했지요.

해방 이후 장로회 내적으로 가장 갈등이 심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1959년 즈음을 말하겠습니다. 당시는 장로회가 선교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75주년 기념식이 계획 되어 있던,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44회 총회’는 첫날부터 소란에 휩싸입니다. 상대를 비방하며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총회록을 살펴보면, 총회가 진행 되던 수일간 거듭하여 장내가 소란하였고, 회의가 중단되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극렬한 갈등의 종점에서 장로회는 둘로 나뉘고 맙니다. 오늘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 바로 이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확인해야 하는 선교 75주년에 장로교회는 어느 때보다 큰 갈등과 분쟁에 휩싸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꽃핀다.’는 말도 있지요.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아니 어쩌면 치열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욱,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하게 됩니다. 가장 본질 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전쟁 중일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는 것에 힘을 쓰게 되지요. 그렇기에 전쟁의 순간에도 여전히 삶은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곤 합니다. 1959년, 전쟁터로 변해버린 총회 현장에서도 반드시 결의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쟁의 순간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노동주일”을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교 내부에서 가장 극렬한 갈등이 벌어지던 해, 우리의 “노동주일”이 제정 되었습니다.

2

우리는 사람이지요. 사전은 사람을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라고 정의합니다. 다양한 말로 표현되지만, 사람을 정의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또는 살아갔던 존재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서 삶, 생명을 제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물건이나 재화를 얻으려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노동은 분리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던 장면도 이 노동의 현장, 치열한 일터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그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낚던 그 현장에,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던 그 현장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노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후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예수의 노동에 동참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노동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말씀 하실 때, 노동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어부,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노동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던 노동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노동으로의 변환을 말합니다. 어부들끼리의 노동에서 어부와 세리, 목수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노동을 말합니다. 나의 생명에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추구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노동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노동,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동, 연대하여 이웃들과 동행하는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들려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 내셨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일구려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그 현장에도 예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정리 할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와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요청하십니다.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옳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결국은 공공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직업을 차별하며, 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력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노라 다짐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내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지어는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며, 투기와 거짓에 동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직업을, 어부와 세리를 얹잡아 보기까지 합니다. “나부터 잘 돼야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일단은 성공한 뒤 선을 행하면 되지”, “선행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 할 때, 그 말에는, 그 성공의 과정에는 이웃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3

오늘은 노동주일이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의 가치를 뒤쫓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노동의 현장에서 불러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자는 부활한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 예수의 승천을 기록하며 복음서를 마무리하지만, 요한복음의 기자는 오늘의 본문을 덧붙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가치를 쫓다가 실패하곤, 제자가 되기 전과 같은 노동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과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안드레, 요한 등 일곱 명의 제자들이 밤 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은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첫 제자로 부르시던 누가복음 5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던 이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노동에 동참하시어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다시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노동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밤 새 노동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곤 자신과 함께 노동하기를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 새 노동하며 수고한 나의 제자들아,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

예수와의 노동을 포기한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다가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우리의 노동이 이와 같아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엔 베드로에게 거듭 “내 양떼를 잘 먹여라. 잘 돌보아라.” 말씀 하시

며, 제자들이 다시 한 번 예수의 노동 공동체로 들어와 더불어 일하며 살기를 청하십니다. 이후 예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공동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모두 더불어 사는, 생선과 떡을 나누어 먹는, 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그런 노동을 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4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노동은, 나의 노동은 직업과 성별과 인종과 지역과 국가의 차이를 넘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노동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동행하기 위한 노동입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일 해 봅시다. 조금은 더 생태를 고민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동료를 대하며, 모든 직업과 직책을 존중하며,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들과 연대하며 일합시다. 타인의 이익을 갈취하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취하는, 결과를 위해선 어떤 방법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자리에선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노동이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우리의 노동은 시대에 민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1959년 노동주일을 제정해 달라며 <산업전도 위원회>가 올린 청원서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있어야만 하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쟁과 같던 44회 총회 속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던 노동주일은, 노동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시대의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며 노동의 중심이 '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당시의 '산업전도'가 '산업선교'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노동주일의 주제도 일과 실적 보다는 사람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노동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노동의 현장에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삶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 예수 공동체가 시작 됐음을 기억하며 그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참고자료 2. 노동주일 공동기도문(1) - 공동예배용

*노동주일 공동기도문은
2020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노동주일을 맞아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노동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본령과 노동이 무슨 관계 속에 있는지 되새겨 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 대한,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하대가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노동은 부끄러운 것으로, 노동하는 인간은 자기의 존엄을 긍정할 권리가 없는,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하대의 역사를 극복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정치적인 핍박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종교적인 정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노동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통해 보는 이 세계는 그 어떤 감정도 피어오르지 않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노동으로 지어진 이 세계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기르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통해 보는 이 세계는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자기보존의 원리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과 같은 기도와 간구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는 공감과 협동에 기반한 상생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을 이루신 것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결과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로의 노동으로 서로를 먹이고 기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탄식에 공감하고 협동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는 평등의 공동체가 오늘도 쉼 없이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노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당신의 몸 된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하대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직장 갑질의 상황 속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조건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탄식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학력과 성별,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기꺼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자료 3. 노동주일 공동기도문(2) - 아동부용

*노동주일 공동기도문은
2020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노동주일을 맞아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밥도 좋아하고 반찬도 잘먹어요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벼를 잘 키우고

어부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줘서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세요?

저는 일하는 분들이

똑딱똑딱 집을 지어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누군가 열심히 일 해줬기 때문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식탁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버스를 운전하고, 물건을 배달해줘요

일 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느라 힘드셨죠?

뽀족한 산을 만드느라

손이 다치진 않으셨나요?

차가운 얼음을 만드느라

발이 시리진 않으셨나요?
다치셨다면 제가 반창고 붙여 드릴게요.

하나님,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일하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자료 4. 노동주일 성도의 10가지 약속(1)

***성도의 10가지 약속**은 2021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총회노동주일 공모전에서 채택된 **성도의 10가지 약속**입니다.
(작성자 : 송다윗 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

1.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며 노동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인 노동자를 우리 몸처럼 사랑하겠다.
2. 우리의 노동을 세상의 창조와 구속에 참여하는 방편으로 삼겠다.
3.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 그들 심신의 건강을 돌아보겠다.
4. 스스로도 안식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안식할 여건을 보장하겠다.
5. 우리 공동체 속 보이지 않는 돌봄의 노동을 인식하고, 그 짐을 나누어 들겠다.
6.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대가 없는 노동을 교우나 목회자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7. 자녀들은 양육을 위해 노동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노동을 하게 될 자녀들을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8.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우리 또는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겠다.
9. 우리가 '소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노동자'였던 때를 기억하고 행동하겠다.
10. 수익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땅에 보물을 쌓는 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이가 되겠다.

참고자료 5. 노동주일 성도의 10가지 약속(2)

***성도의 10가지 약속**은 2021년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한
총회노동주일 공모전에서 채택된 **성도의 10가지 약속**입니다.
(작성자 : 정혜진 님)

1.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간주해온 행위들을 '노동'으로
관점을 바꿔 바라봅니다.
2.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노동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
급하고, 사정이 어려울 시에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태도로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노동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공동체적 관심을 기울입니다.
4. 노동 환경에 성, 나이, 장애, 지위, 학력,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이 존재
하지는 않은지 성찰하며, 관습적인 성별분업을 경계합니다.
5. 친밀성을 위한 다양한 감정노동(정서적 지지, 배려, 경청 등)이 특정
성, 나이, 지위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합니다.
6. 가사노동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참여하며, 그 가치를 가볍
게 여기지 않습니다.
7.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고용관계를 맺을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소통합니다.
8.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명확히
이행합니다.
9. 노동자는 노동 환경과 조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정
당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당당히 행사합니다. 고용인은 노동자의 의
견을 반영하고 노동자 관점으로 노동 환경을 성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0. 가정과 교회, 사회가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임을 알며 이를 위해 노력합니다.